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주제별 현황과 방법론적 성찰*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는 2000년대 들어 양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아프리카 지역연구는 정치학이나 경제학 분야에서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아프리카를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1983년 스와힐리어과를 창립한 것은 한국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 연구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회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과 학문에서 아프리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는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여전히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연구진의 다수를 이루는 스와힐리어과 출신 아프리카 전공자들과 다른 분과 학문 출신 연구자들 사이에 서로 학문적 소통과 경쟁이 부족하여 아프리카 지역연구가 고립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가 지역연구로서 학문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적 성찰이나 이론적 정치함을 강화시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수준을 심화시켜야 한다. 외국 학자들의 연구를 한국에 소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프리카 현지에서의 연구 경험을 쌓아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이 확보되어 있는 주요 대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 아프리카, 지역연구, 주제별 현황

I. 한국과 아프리카: 냉전 외교에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로의 전환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 고조는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아프리카 정책이 과거에 비해 내용과 비중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고,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도 아프리카가 활동 의제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

* 이 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주최로 열린 2013년 상반기 학술워크숍(2013. 5. 22)에서 발표한 초고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워크숍에서 토론해 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장용규 교수와 논문 작성에 조언을 해 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원빈 교수에게 감사함을 표한다.

하게 부상하고 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아프리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자원 활동가를 모집하여 파견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 지역연구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장 소외된 지역인 아프리카 연구에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연구재단이 지역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아프리카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정부도 자원 개발이나 시장 진출과 같은 정책연구 과제를 늘리고 있다. 대중문화 부문에서도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일부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를 희화화하는 수준을 벗어나 아프리카 현지에서 촬영한 문화 다큐멘터리나 시사 다큐멘터리가 대중의 환영을 받고 있다.¹ 아프리카 관광 역시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관광의 대중화로 차별적인 여행 경험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아프리카는 일부에게만 가능한 선택받은 여행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기회의 땅’ 혹은 ‘도전의 땅’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아프리카와 맺어온 교류의 역사를 고려하면 새롭고 낯선 것이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1960년대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 기본구도가 형성되었다. 아프리카 신생국가들이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거 가입하고 비동맹 정신에 근거한 정치적 입장을 강조하자 한국은 북한과 심각한 외교 경쟁을 벌여야 했다. 한반도 의제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했던 한국 정부는 대 아프리카 외교의 기본 축을 북한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한 표 관리로 설정했다. 실제 북한은 1960년대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지지하에 아프리카 국가들과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했고, 수교국의 수나 외교 활동 면에서 한국보다 우월한 지위를 선점한 상황이었다.

아프리카에서의 남북한 외교 경쟁은 아프리카 국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몬로비아(Monrovia) 그룹(한국)과 카사블랑카(Casablanca) 그룹²(북한)으로 양분되어 진행

¹ 그룹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들은 여전히 관점과 재현 방식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지면 관계상 별도로 다루지 못하나 윤선희(2012)를 참조할 것.

² 아프리카단결기구(OAU: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의 창설 과정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한 것이다. 몬로비아 그룹은 세네갈의 쉐고르 대통령이 주도했는데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토고,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세네갈, 다호메이, 마

되었다(노영찬 외, 1998: 84). 남북의 대립과 경쟁이 아프리카 국가들도 양분해 놓은 것이다. 남북한의 외교 경쟁은 수교와 단교, 공관 개설과 철수, 친선사절단의 정기방문과 각종 지원 정책의 경쟁으로도 확대되었다. 이 시기 한국 정부의 대 아프리카 외교 활동에 대해 아프리카 외교의 최전선에 있었던 외교관들이 “목적과 수단의 혼동, 실체 없는 허상의 명분, 체면에 구애된 실리 상실, 형식 집착 등으로 아국에 대한 UN에서의 지지가 세속적인 흥정의 대상”으로 전략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노영찬 외, 1998: 84-84).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와 1970년대 아프리카는 북한의 외교적 성과가 늘 앞서 있었다(이석구, 1983). 북한은 비동맹 외교를 축으로 아프리카 각국에 군사고문단을 비롯한 다양한 인적 교류를 확대했고, 수교국가의 규모나 교류 협력의 질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아프리카에 대한 북한의 개입은 정치 및 군사 분야에서 막대했다. 이념적 지향이 같은 정부나 반군 세력을 폭넓게 지원했으며, 사회주의 성향의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예를 들면 북한은 짐바브웨에 1981년 1,250만 파운드를 지원하며 군사훈련을 지도했고, 106명의 군사교관³을 파견하여 짐바브웨의 정예군 제5여단 창설을 주도했다. 이 제5여단이 짐바브웨의 민간학살에 관여했기에 짐바브웨 시민 중 일부는 북한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impson, 2008). 짐바브웨의 게릴라 저항을 연구한 영국의 사회인류학자 데이비드 란(David Lan, 1985) 역시 짐바브웨 게릴라 운동에서의 북한의 역할을 주목할 정도로 북한의 아프리카 개입은 과감했다. 북한의 이러한 개입은 아프리카의 복잡한 내전과 반정부 게릴라전에 종교적 흔적을 남기기도 했다. 1985년 우간다 내전 과정에서 정부군에 저항하던 반군들이 이합집산할 무렵 ‘성령기동부

라가시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카사블랑카 그룹은 가나의 응크루마 대통령이 이끌었는데, 가나, 말리, 기니,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리비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며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했다(Manelisi et al., 2000; Zang, 1998). 이 두 그룹은 미국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남북한도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집단에 우선적인 외교역량을 집중했다.

³ 북한이 파견한 군사고문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치가 논의되고 있다. 일부 문헌은 1,000명이 넘는 군사교관을 파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Chitiyo and Rupiya, 2005: 341). 북한의 아프리카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박재규(Park, 1987)를 참조할 것.

대(Holy Spirit Mobile Forces)'를 창설한 여성 예언자 알리스 라크웨나(Alice Lakwena)는 수도인 캄팔라(Kampala)로 진군하면서 '영매'로서 초자연적 신들의 도움을 활용했다. 알리스가 접신한 신들은 위계적 서열이 명확한데, 최고의 신인 라크웨나(Lakwena) 다음의 3대 신 중에 북한 출신인 '칭포(Ching Po)'가 있었다. 그는 무기의 공급과 수송을 책임진 신으로 돌로 수류탄을 만들기도 했다(Behrend, 1999: 25-26). 알리스의 패전 이후 '주님의 저항군(The Lord's Resistance Army)'을 조직한 조셉 코니(Joseph Kony)는 새로운 신을 접신했는데, 그 중에도 중국 혹은 북한 출신인 '잉추(Ing Chu)' 신은 정부군의 실탄을 관장하면서 죄를 지은 게릴라 군인만 피격하게 만든다고 했다. 다른 전승에 의하면 잉추는 정부군의 지프 차량을 움직여 벌을 주기도 한다. 또 다른 신인 '엘 웰 베스트(El Wel Best)' 역시 북한 출신으로 전해진다(Behrend, 1999: 29-30). 북부 수단 지역에서 아프리카의 내전과 '신들림' 신앙을 연구한 또 다른 인류학자인 보디(Boddy, 1989: 165) 역시 중국 혹은 북한 출신의 신들을 언급하는데, 아프리카 반군 출신 주민들의 한국어 발음과 이를 채록한 서구 인류학자들의 한계로 명확한 이름을 표기하지 못할 뿐이다. 우간다나 짐바브웨, 북부 수단 등지에 전해지는 게릴라전과 '신들림'에 대한 구전에 북한군 자문단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북한의 아프리카 개입이 얼마나 광범위했고 깊었는가를 실감하게 해 준다.

한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 활동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UN 가입이었다.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고 한반도 문제가 더 이상 UN에서 토의되지 않게 되자 아프리카 외교는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남북한 모두 아프리카 국가와 동시수교를 하게 되었고 수교를 둘러싼 배타적 경쟁도 사라졌다.⁴ 그 결과 아프리카는 한국 정부에 의해 정치적 효용이 다 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경제적 중요성은 부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아프리카는 한국의 관심 밖에 머물게 되었다.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북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계기가 되었다. 아랍지역에서 철수하는 한국의 해외 건설업체들이 리비아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사업을 수

⁴ 남북한 모두 2010년 기준으로 아프리카의 46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하자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적 관심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향상은 아프리카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게 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 나이지리아에서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로 공식화되었다. 이 선언은 한국 정부가 전통적으로 견지해 온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 선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현실에 맞추어 아프리카의 빈곤 탈피와 경제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개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 원조를 받아야 했던 수원국에서 벗어나 이제는 원조 공여국으로 변신한 한국이 개발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전쟁과 식민통치의 폐허에서 이룩한 한국 경제의 성공신화는 1980년대 이래 세계은행과 국제기구의 개발 전문가들에게 늘 주목받아 왔다. 특히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1960년대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보다 빈곤했던 한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의 성과를 아프리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온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 2년마다 한·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아프리카경제협력의체(KOAFEC: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를 구성하고 아프리카에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의무를 강조하기보다는 ‘자원외교’라는 보다 실리적 목적을 전면에 제시하며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와 진출을 가속화시켰다. 특히 자원부국으로 알려진 몇몇 국가에 대한 집중적 교류 협력이 시도되었고, 아프리카의 자원을 염두에 둔 중국과 일본의 대 아프리카 정책과 맞물려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해외의 아프리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리카 진출이 흥미로운 연구주제로 등장했고,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한국의 아프리카 정책 연구에 관심을 두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3국의 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가 시작되었다(Iwata, 2012).

아프리카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조 변화는 시민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가 아프리카를 지원하기 위한 ODA 예산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자, 시민사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정립하며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빈곤과 개발에 관한 의제 형성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KOICA가 아프리카에서 개발협력 분야 프로그램을 개척해 나간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이후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자신들만의 역할을 만들어나갔다. 예를 들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브리지(Bridge) 사업을 기획하여 2010년부터 아프리카 6개국에 한국인 활동가를 파견하여 문해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학습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종교적 배경을 지닌 다양한 민간단체들도 아프리카에서의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장·단기 프로그램으로 청년 활동가를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가 아프리카에 대해 갖고 있던 기존의 인식 구조를 볼 때 놀라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사회의 기존 인식 구조는 19세기 내내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인종주의적 편견과 제국주의적 우월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서구인들이 아프리카를 묘사했던 기본 구조는 서구를 규정하는 타자로서 아프리카를 ‘발명’해 내는 것이었다. 아프리카의 지식인들이 서구의 식민지배를 비판한 것은 단순한 정치경제적 지배와 수탈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발명해 낸 서구의 인식 구조를 향한 것이다(Mudimbe, 1988, 1994). 나이지리아의 소설가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 1989)는 이를 서구인의 ‘욕망’이라 비판한 바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인의 기존 인식 구조는 위에서 언급한 서구인의 편견을 그대로 재현해 온 것이다. 한국인에게 아프리카는 ‘원시와 미개의 땅’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 근거하여 아프리카를 오직 원시성과 미개함으로만 이해하거나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으로 아프리카를 낭만화하기도 한다(한진수, 2006, 2007a). 한국 정부가 검정한 중학교 교과서에 ‘아프리카는 타잔과 제인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던 곳’으로 소개되거나 ‘아프리카인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춤과 노래로 표현한다’고 기술되는 실정이며(한진수, 2007a), 이러한 인식은 교육현장에서 반복되거나 강화되기도 한다(김다원·한진수,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

프리카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는 수요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아프리카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마지막 숨겨진 목적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해외여행이 더 이상 소수만이 누리는 혜택이 아닌 상황에서 아프리카 관광은 자신들의 구별된 취향과 감수성 그리고 경제력을 보여 주는 상징적 소비 행위로 자리 잡고 있다(한건수, 2006). 이러한 경향은 아프리카 여행기의 출판이 1998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현재 국내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프리카 여행기 중 저자가 한국인인 서적만 집계하면 57권의 여행기가 판매되고 있다. 이 책들은 모두 유럽이나 남미 등 다른 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온전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만을 대상으로 한 책들이며, 실제 아프리카를 포함한 여행기를 추가하면 그 숫자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북아프리카 여행기도 제외했는데, 만일 이집트를 제외한 마그레브 지역 여행기를 추가하면 약 60권이 된다. 외국인 작가가 집필한 아프리카 여행기가 국내에 번역·출판된 것도 10여 권이 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아프리카가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부상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는 1959년 외무부가 발간한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파견 친선사절 보고』(박원탁 외, 1998: 191)나 1955년 한기련의 “불란서의 고민과 아프리카의 폭동”(조원빈, 2012: 141)에서 시작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아프리카 연구가 실질적으로 성장한 것은 1980년대 이후(박원탁 외, 1998)이며, 특히 2000년대에는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아프리카 연구가 급증했다(조원빈, 2012). 그러나 아프리카 연구가 이처럼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나 시민사회에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가 기여한 것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자 수는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고 제도적으로 아프리카를 교육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무지나 편견이 지속되고 있으며, 심하게 말하면 아프리카로 대표되는 인종주의적 편견도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가 사회적 수요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아프리카 연구가 학계에서도 여전히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는 문

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아프리카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 현황을 ‘지역연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아프리카 연구를 분야와 주제별로 검토해 보고 이를 통해 현행 연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할 것이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두 편의 리뷰 논문(박원탁 외, 1998; 조원빈, 2012)이 모두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를 분야와 시기별로 통계 처리한 후 개괄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했기 때문에 통계로 설명되지 않는 아프리카 연구의 현황과 한계를 토대로 실질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I. 지역연구로서의 아프리카 연구: 방법론과 분과 학문과의 관계

한국에서 지역연구는 1990년대 중반 ‘세계화(전지구화)’ 담론의 도입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나 기업에서 지역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원을 확대하자 대학별로 지역연구 관련 학과나 대학원, 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했고 학자들도 지역연구 학회를 설립했다(최협, 1997: 19). 이 시기 한국에서의 지역연구 혹은 지역학을 정립하기 위한 개념과 방법론의 논의가 여러 분과 학문에서 제기되었는데(최협, 1997; 김경일, 1998a; 이상섭·권태환 1998), 논의의 핵심은 서구 중심의 지역연구와 차별화된 한국의 지역연구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모아졌다.

지역연구의 개념과 방법론의 논의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 시기 국내 학계의 지역연구는 인류학과 해당 지역의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 외에는 연구자의 언어 능력이나 연구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화된 한국의 지역연구를 토론한 이유는 서구의 지역연구가 과거 식민주의나 강대국의 세계 지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에 한국의 지역연구가 이러한 비판을 어떻게 수용하고 차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였다.

이 시기 학자들은 미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가 정리한 지역연구의 목적과 쟁점을 주로 소개하였는데, 김경일(1998b)은 미국에서도 지역연구의 목적과 실천이 학자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지역

연구의 발전은 분과 학문과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방법론적 성찰을 통해 가능했음을 강조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국내 학자들에게 경험적 가치로 수용되기보다는 당위론적 분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당시 국내의 지역연구가 대부분의 분과 학문에서 초보적 수준이었기에 경험적인 고민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 관점에서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을 회고해보면, 분과 학문과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방법론적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 당시의 문제 제기가 너무나 중요한 과제였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지역연구와 분과 학문 간의 관계를 통해 현재 지역연구가 직면한 문제를 살펴보자. 한국의 지역연구 분야 중 학문적 정체성이나 기여도 면에서 일정한 입지를 확립한 지역은 그리 많지 않다. 국내에서 지역연구의 역사가 오래된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전통적으로 연구자가 많았던 유럽과 북미 지역연구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을 뿐이다. 최근에 본격적인 지역연구로 성장한 동남아시아 연구는 연구자의 규모나 연구 성과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예외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연구 지역의 공통점은 초기에 해당 지역연구를 주도했던 어문학 전공 출신 지역 연구자들과 뒤늦게 합류한 여러 분과 학문 출신 연구자들이 서로 학문적 경쟁과 토론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지역연구가 출현하기 이전 한국의 해외 지역연구는 어문학 전공 출신이나 연구자들이 해당 지역의 언어 능력과 현지 경험을 토대로 지역연구의 기초를 닦아 왔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학자들은 국내 학계가 아무런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한 지역 전문가로 공헌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이 다른 분과 학문에서 일기 시작했을 때, 현지어 능력이나 실질적인 현지조사 경력이 없었던 분과 학문의 연구자들은 이들 지역 전문가들로부터 연구의 진정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이 있다. 이런 문제로 지역연구가 확장되는 초기에 어문학 전공이나 어문학 전공 출신의 초기 지역 연구자들과 분과 학문에서 새롭게 연구를 시작하는 학자들 사이에 불편한 경쟁이 일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현지어 능력이나 현지 사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헌연구나 간접 자료로만 연구하는 분과 학문의 신진 연구자들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고, 분과 학문 연구자들은 어문학 중심의 지역 연구자들이 학술 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와 방법론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했다. 이러한 논쟁은 때로 학회가 분열되거나 독자적인 학회를 새로 결성하고 학술지도 따로 출판하며 서로의 연구를 인정하지 않는 갈등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런 경쟁과 갈등은 지역연구의 역사가 오랜 나라에서도 나타났다. 이론적 논의와 방법론적 정교화를 추구하는 분과 학문과 특정 지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지 연구 경험이 많은 지역연구가 서로 경쟁하는 것은 초기에 일상적이었다. 그러나 외국의 지역연구 사례에서 이러한 경쟁과 갈등은 연구의 수준을 심화시키고 연구주제의 다양화 면에서 모두 순기능적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의 지역연구 중 일부 지역의 사례도 비슷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방법론적 성찰과 정교화는 여러 분과 학문들이 연구주제나 지역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더욱 진전되었다. 학문 분야 간 토론과 학제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서로의 방법론을 이해하고 보완하게 되고, 이는 곧 연구의 수준을 발전시켜 왔다.

이런 관점에서 아프리카 지역연구를 분석해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문학 중심의 아프리카 지역 연구자들과 개별 분과 학문과의 학문적 소통이나 경쟁 및 협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시작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다.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가 제도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1983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스와힐리어과(현재 아프리카학부)가 개설되면서부터다. 그 이전에 아프리카를 연구한 학자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대한 현장 경험이나 연구 경력이 없는 학자들이 문헌연구를 통해 간헐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이었고 자신의 주 전공을 아프리카 연구로 정립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스와힐리 언어와 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과의 시작은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스와힐리어과는 아프리카 연구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고, 이들이 현재 아프리카 연구의 주축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정부나 학계에서 어떠한 관심과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관련 학과를 키워낸 한국외국어대학 아프리카학과와 출신 연구자들의 공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다른 지역연구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아프리카 지역연구가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원인이 ‘지역연구’와 ‘분과 학문’ 분야의 학문적 소통과 경쟁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 연구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어문학 중심으로 교육

받은 연구자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어문학이나 역사학 및 정치학 분야로 전공을 확장한 연구자(‘지역 연구자’)들과, 다른 분과 학문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문적 훈련을 받고 연구대상을 아프리카로 정한 연구자(‘분과 학문 연구자’)로 양분된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분과 학문 연구자’ 중 인류학 분야를 제외하면 아프리카 현지에서의 연구 경력이나 현지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분과 학문 연구자 중 박사 학위 논문을 아프리카 연구로 취득한 학자의 수는 극소수이며 대부분 전혀 다른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박사 학위 논문 중 일부에서 아프리카 자료를 사용한 학자들이다. 이러한 현실이 ‘지역 연구자’와 ‘분과 학문 연구자’의 학문적 교류나 소통을 저해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분과 학문 연구자’들의 상당수가 아프리카 연구의 진정성과 연구자의 정체성에서 회의적 태도를 보여 준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지역 연구자’들이 타 분과 학문 연구자들과 학문적 소통을 충분히 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지역 연구자’들에게 학문적 토론과 소통의 장이 제공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실제 개별 분과 학문에서 아프리카 연구는 배제되거나 소외된 주제였고, 간혹 학술대회에서 아프리카 관련 발표나 세션이 기획되면 대부분 맨 마지막 순서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심지어 지연된 학술대회 일정으로 정작 발표와 토론조차 제대로 시간을 할당받지 못한 경험도 많았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경험은 ‘지역 연구자’들의 소통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최근 아프리카 연구에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아프리카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정부연구비를 수주하는 데 열심인 대학과 연구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랜 기간 아프리카 연구에 천착해 온 지역 연구자들이 갖는 복합적 감정도 이러한 경향에 일조하고 있다. 문헌연구와 간접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시작한 학자들이 갑자기 아프리카 전문가로 대거 등장하는 현실은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개념과 정체성, 진정성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연구가 타 지역연구에 비해 개별 분과 학문과의 경쟁과

⁵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이 논문의 초고를 발표했을 때 토론을 맡아 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장용규 교수의 토론(2013. 5. 22)을 인용함.

협력을 통해 상생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책임은 연구자들 모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의 절대적 수를 보았을 때 아프리카 ‘지역 연구자’들의 노력이 더 필요했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런 현상은 아프리카 지역 연구자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국내 아프리카 지역 연구자들의 전공 분야가 편중되게 되었고, 학자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 안에서만 활동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연구를 고립시키거나 주변적 위치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고립은 아프리카 지역연구에서 비중이 높은 어학과 문학 분야에서 심화되었다. 아프리카 언어와 문학 연구에서 다른 언어학자나 문학 연구자들과 학문적 교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영문학이나 불문학 전공자들 중 아프리카 문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학자들이 기존의 아프리카 문학 연구자들과 유리되어 있으며, 이는 언어학과 역사학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개별 분과 학문에서 아프리카 연구가 논의되지 않는 한 아프리카 지역연구는 한국의 학계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연구의 고립이 가져 온 결과를 아프리카 역사 연구를 예로 들어 보자. 아프리카는 무문자사회로서 전통적인 역사학 방법론에서는 연구가 불가능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아프리카 역사 연구자들은 인류학과 같은 분과 학문의 방법론을 수용하는 방법론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어왔다. 또한 인류학이나 여성학의 이론과 주제들이 아프리카 현대사 연구에 접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아프리카 역사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적 성찰이 이루어질 기회조차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⁶

요약하면, 현재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가 처한 당면과제는 개별 분과 학문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연구는 분과 학문 연구자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이론적 논의나 방법론적 정교화 면에서 더욱 발전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여러 분과 학문 연구자들이 서로의 방법론을 이해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⁶ 현재 국내 대학에 재직 중인 아프리카 역사 전공의 외국인 학자들은 연구의 내용과 수준에서 예외적이거나 이들의 영향이 아직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나 역사연구 일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III.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분야 및 주제별 현황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를 분야와 주제별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아프리카 지역연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대별된다. 인종이나 사회문화적 배경 특히 언어와 종교 면에서 북아프리카는 아랍지역과 함께 연구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외국 학계의 경향이다. 물론 정치학 분야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의 단위로 연구하는 주제는 예외적이지만, 사회문화적 현상을 연구할 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일반적 범위로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연구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국한시키고자 한다. 다만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 현황이나 변화를 소개하는 제한된 맥락에서는 북아프리카 연구의 일부를 소개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자를 어떤 기준에서 설정하는가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논문을 한 편이라도 작성한 연구자들도 통계 분석에서는 포함시키지만 아프리카 연구의 경향을 보여 주는 주제별 분석에서는 모두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모든 연구자들을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관련 논문을 작성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아프리카를 소개하는 수준의 연구나 외국 학계의 연구를 정리 요약하는 연구들보다는 독자적인 연구나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시기별 분류

먼저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를 시기적으로 분류해 보면,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토대를 개척한 제1세대 학자들과 지역연구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2세대 학자들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세대 학자들은 각각의 분과 학문에서 아프리카의 사례를 연구 주제로 삼았거나 한국아프리카학회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닦은 학자들이 포함된다.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학자로는 정치학의 하경근

(1972, 1987)과 박원탁(1982, 1989), 농학의 왕인근(1990, 1995) 등을 들 수 있다. 하경근(1972)은 한국에서 출판된 최초의 아프리카 관련 연구 서적이며, 박원탁 교수는 아프리카 정치 연구뿐만 아니라 대 아프리카 외교 자문 및 한국아프리카학회의 설립을 이끈 초기 연구자다. 농학의 왕인근(1990, 1995) 역시 아프리카 농업 연구를 개척했다. 경제학의 심의섭(1990)과 나윤도(1983, 1990) 등도 비교적 일찍 아프리카의 경제와 무역 분야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아프리카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했고, 당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도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했기에 아프리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보다는 서구 연구자들의 논의를 한국에 정리하여 소개하는 경향의 연구를 많이 했다.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2세대 학자들은 1983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스와힐리어과 개설 이후 아프리카 지역연구가 본격화하면서 등장했다. 스와힐리어를 전공한 김윤진(1994, 2006, 2007)과 권명식(1988, 2004, 2011, 2012)은 한국에서 스와힐리어를 교육하고 아프리카 문학연구를 개척한 학자들이다. 이들의 연구는 스와힐리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 교재나 문법 연구, 그리고 아프리카 작가들의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논문과 번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큰 공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와힐리어과를 아프리카 어문학 연구와 교육의 중심으로 발전시킨 것인데, 스와힐리어과는 이후 아프리카학과를 거쳐 아프리카학부로 발전해 나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와힐리어과에서 교육받은 연구자들 중 일부는 영국이나 독일에서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본격적인 아프리카 지역 연구자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장태상(나이지리아 하우사 산문 문학), 장용규(남아프리카 줄루 종교, 인류학), 양철준, 박정경(스와힐리어), 김광수(남아프리카공화국 역사), 서상현(남아프리카공화국 정치), 김학수(차디어) 등의 연구자들이 전문분야를 다 변화시켰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다른 학문 분과 출신 학자들도 아프리카 전문 연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신원용(남아프리카공화국 정치)과 황규득(남아프리카공화국 정치), 이석호(아프리카 문학) 등이 대표적이다.

개별 분과 학문 분야에서 아프리카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인류학의 송도영(튀니지)과 한건수(나이지리아)가 있으며 박사 논문에서 일부 아프리카

를 다룬 후 아프리카 연구를 시작한 학자로는 정치학의 이한규(카메룬)와 한양환(코트디부아르)이 있다. 박사 학위 과정에서는 아프리카를 연구하지 않았지만 학위 취득 후 아프리카를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학자들도 있는데, 김영수(정치학)와 박영호(경제학)가 이러한 학자들 중 가장 활발하게 아프리카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2. 분야별 분류

다음으로 아프리카 지역연구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자. 현재 국내 아프리카 지역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정치·경제 분야다. 이러한 경향은 아프리카 연구의 초기에서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실용적 논리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에서 배출한 아프리카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은 2010년 291편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인 160편이 정치 및 경제 분야이며, 『한국아프리카학회지』에 1986년부터 2009년 사이에 게재된 228편의 논문 중에도 정치 관련 주제가 61편(26.8%), 경제 관련 주제가 53편(23.2%)으로 둘을 합치면 역시 절반에 달한다(장용규, 2013).

문제는 정치나 경제 분야의 연구 논문이 대부분 아프리카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체계적 훈련을 받지 않은 연구자들에 의해 대거 작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문들은 외국 학계의 연구들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정치학 분야에서 최근 아프리카 정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나 유럽과 북미의 대학에서 정치학으로 학위를 취득하면서 아프리카를 연구한 학자들로 아프리카에서의 현지 연구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경제 분야의 연구들은 분과 학문으로서의 경제학 연구들과 비교할 때 이론적 논의는 적은 편이고, 대부분 아프리카 경제 현황이나 한국의 대 아프리카 시장 진출 전략, 무역 관련 연구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무역과 시장 진출을 위한 실용적 목적의 연구 보고서와 현황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문제는 주요 분석 자료인 경제 관련 통계에 대한 맥락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경제 통계는 국가별로 신뢰성에서 커다란 격차

가 있으며 통계의 범주와 시점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집계된 통계 자료의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프리카 연구에서 정치·경제 분야 이외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아프리카 어문학 분야다. 아프리카 언어 연구는 스와힐리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가 스와힐리어를 전공했기 때문인데 하우스어와 차디어를 비롯한 다른 아프리카 언어로 연구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나 아직은 연구 대상 언어가 부족한 편이다. 국내 대학의 아프리카어 교육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스와힐리어와 하우스어 강좌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프리카 문학은 아프리카의 전통(고전)문학에 대한 연구와 현대문학 연구로 구분되는데 하우스 구연문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대문학에 치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아프리카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 소개하는 수준이며, 문학이론이나 비교문학 차원에서의 작가 및 작품 연구를 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최근에는 영문학과 불문학자 중 민족주의나 탈식민주의와 관련해서 아프리카 작가를 연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브라질문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구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앙골라의 포르투갈어 작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문화 연구는 인류학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민족정체성, 종족 갈등, 집단 기억, 종교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프리카인의 국제이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아프리카 전통문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민속 관련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예술에 대한 미학적 연구도 불문학자에 의해 시작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미술품에 대한 소개 수준의 단행본들이 출간되고 있다. 기독교 신학 연구진 중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의 종교와 기독교에 대한 단행본을 낸 경우도 많이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선교 목적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

아프리카의 역사 연구는 국내 전문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역사 관련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나 국내 역사학계와의 학문적 소통이 부족한 편이며 지역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한 편이다. 고고학과 역사학 전공의 외국인 교수가 국내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나 아직 후속 연구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출간된 아프리카 역사 개설서(공일주·전완경, 1998; 김윤진, 1994, 2006; 박승무, 2002)는 아프리카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연구자들의 저작이며, 상대적

으로 학계의 권위를 인정받은 외국 학자의 개설서들이 번역되어 있으나 일부 번역서들은 번역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아프리카 역사 연구의 기념비적 저작인 유네스코의 아프리카역사총서(General History of Africa)는 총 8권이 출판되었는데, 기획 50주년을 맞이하는 2013년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과 함께 제9권을 집필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서는 현재 전 세계에서 8개 언어로 전권 번역되었으나(부분 번역을 포함하면 13개 언어임), 한국어 번역은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다. 중국은 이미 전권을 번역했고, 일본도 번역 중이며 북한마저 이미 이 중 두 권의 번역을 마치고 출판한 상태를 고려하면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가 얼마나 초보적 수준인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역사 분야는 지역연구의 기초분야 중 하나다.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와 교육 모든 면에서의 개선이 시급하다.

3. 주제별 분류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는 몇 가지 주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연구자의 부족과 한국 사회의 수요가 맞물려 벌어지는 현상이다. 국가별 연구를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케냐와 나이지리아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경제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아프리카 내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관련 있는 현상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영어권 아프리카 국가라는 점이다. 아프리카 지역연구에서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는 불문학 연구자들이 불어권 아프리카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나 배재대학교 북아프리카연구센터, 경희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는 불어권 아프리카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유학한 사회과학자들도 불어권 아프리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한양환, 2008b; 한양환 외, 2009; 홍의선, 2009). 이들은 카메룬, 르완다, 세네갈, 콩고민주공화국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확산시키고 있다.

주제별로 국내 학계에서 많이 다루어진 아프리카 연구를 검토해 보자. 먼저 가장 많은 연구 업적이 축적되고 있는 정치·경제 분야에서는 국내 학계나 경제계의 관심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아프리카 국가의 개별적 정치 상황을 소개하거나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제기되었다. 아프

리카 정치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제에 집중되고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 발전을 이루는 과정, 특히 민주화 과정에 대한 연구(김영수, 2005; 서상현, 2000, 2006; 신원용, 1997; 이한규, 1989, 2000, 2010; 한양환, 2008a; 황규득, 2011a), 민주화와 선거제도(조원빈, 2012a),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SADC)와 같은 아프리카의 지역 및 국가 연합(신원용, 2003; 신원용 외, 2005; 한양환·김승민, 2003; 황규득, 2006, 2007a), 선진국 혹은 과거 식민종주국과 아프리카의 관계 분석(서상현, 2010; 신원용, 2010; 한양환, 1997; 황규득, 2011b, 2012) 등이 있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연구 주제는 아프리카의 분쟁과 내전에 관한 연구(이한규, 2009; 조홍식, 2011; 한양환, 1998, 1999), 한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이호영, 1999, 2011), 아프리카 원조(조원빈, 2012b) 등이다.

정치 분야에서 학제적 관심을 받고 있는 연구 주제 중 하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화해위원회를 통한 과거사 정리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연구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폐지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 변화(김영수, 2001a, 2008; 서상현, 200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화해위원회 활동 소개(김영수, 2001b)가 있다. 역사학 분야에서도 과거사 청산이라는 주제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화해위원회를 집단기억 연구(이남희, 2003, 2005)로 접근하거나 역사 청산과 국가 건설의 관점에서 위원회 활동을 소개(김광수, 2002)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역사 연구에서 과거사 청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르완다에서의 학살과 과거사 청산(김영수, 2009)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이나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 연구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대외정책연구원이 이러한 연구를 주도하며 각종 연구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⁷ 학술 논문으로 발표된 것을 정리해 보면 시장 진출 전략(박영호, 2001, 2003, 2004; 우영환, 2001)과 직접투자 현황과 전략(신원용, 2001) 그리고 자원 확보 전략과 한국 경제(심현수, 2011; 정래광, 2010) 등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정부 차원의 연구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주제이며 사회적 수요도 많은 영역이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아프리카 현지 연구 경험이

⁷ 지면관계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대외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목록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양 기관의 홈페이지에 보고서 원문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할 것.

적은 상태에서 통계자료에 의존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어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역량이 보완되어야 한다.

어문학 분야의 주제별 연구 상황을 보면, 어학 분야는 스와힐리어(김윤진, 1986; 권명식, 2007, 2008)와 하우스어(장태상, 2012), 차딕어(김학수, 2004a, 2006, 2011) 연구로 편중되어 있으며, 아프리카어의 문자 체계(김학수, 2004b, 2007; 장태상, 2005), 아프리카 국가의 언어 정책과 실태(김학수, 2005; 장용규, 2005)를 소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아프리카 언어 연구는 추후 언어학 일반의 다양한 주제에서 분과 학문인 언어학과 학문적 교류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의 전통문학인 구연문학(oral literature)에서는 스와힐리 고전시(권명식, 2012), 스와힐리 구연민담(박정경, 2001, 2004), 기원설화(박정경, 2012a), 하우스 찬양시와 속담(장태상, 1996, 1999b, 2000, 2007, 2010) 등이 연구되었다. 현대문학은 주로 아프리카 작가와 작품의 소개와 번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나 비슷한 지명도를 지니고 있는 소수의 작가 작품이 집중적으로 번역되고 있다. 예를 들면 월레 소잉카(Wole Soyinka)의 소설과 희곡, 나딘 고디머(Nadine Gordimer), 존 쿣시(John Coetzee),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 등이 소개되었다. 그 외에 여성주의 작가로 주목 받는 부치 에메체타(Buchi Emecheta), 크레올 영어의 문학적 성취를 보여준 아모스 투투올라(Amos Tutuola), 탈식민주의 작가인 응구기와 씨옹오(Ngugi wa Thingo) 등의 작품이 번역 소개되었다.⁸ 이론적 논의에서는 민족주의와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아프리카 작가와 작품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민족주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문학을 분석한 연구(심재중, 2008; 이석구b, 2001)를 비롯하여 탈식민주의 논의와 관련된 아프리카 작가들의 논쟁도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치누아 아체베(1989)와 응구기와 씨옹오(1999, 2007)의 창작 언어 선택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번역 소개되었고, 탈식민주의 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김순식, 1994; 박정경, 2005; 이경원, 2002, 2011; 이석구b, 1997, 2011; 이석호, 2003a, 2003b, 2009)도 이어졌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아프리카 문학 연구(김의락, 2003; 이경순, 1997; 이석구b, 2008; 정혜욱, 2006)도 시작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아프리카 문학을 전문으로 연구하기보다는 비교문학이나 이론적 관점에서 아프리카 작가를 소개

⁸ 아프리카 작가들의 작품 번역서 목록은 지면관계상 서지사항을 생략했음.

하는 데 그치고 있다.

문학 연구자들이 아프리카 예술에 대한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로도 연구의 폭을 넓히고 있다. 네그리튀드 현대미술(심지영, 2009, 2010)에 대한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미술을 소개하는 대중적 에세이들도 출간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사회문화에 대한 연구는 친족체계(한건수, 2000), 집단기억과 민족 정체성(Han, 2000; 한건수, 2002, 2005b), 정체성의 정치(한건수, 2001, 2010a), 전통종교(한건수, 2003, 2007b, 2009; 장용규, 2003; 장태상, 1998, 2002b) 및 정체성의 정치(한건수, 2001, 2010a), 아프리카 독립교회(임희모, 2007), 속담을 비롯한 민속 연구(장태상, 1999a, 2002a), 국제 이주와 난민(한건수, 2005a, 2008, 2010b; 장용규, 2005, 2008; Song, 2012a, 2012b) 등이 연구되고 있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의 HK사업단은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통한 민족지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설병수, 2013; 이한규, 2013).

IV.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주변화와 발전을 위한 성찰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 발전 전략을 분석한 연구는 앞에서 보았듯이 10년을 주기로 두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 연구는 모두 아프리카 지역연구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후 아프리카 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진단과 제안이 비슷하다. 처음 아프리카 연구 현황을 분석한 연구(박원탁 외, 1998)는 한국에서 지역연구를 본격화한 1990년대 말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를 분야별로 통계 분석하고 아프리카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후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아프리카 자료의 부족, 연구 인력의 절대적 부족, 편향된 연구 분야를 지적했다(박원탁 외, 1998: 200-202).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가 발전하기 위한 제안으로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방법 개선,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한 연구소 설립 및 연구비 지원, 아프리카 자료의 확보, 아프리카 연구 학회의 활성화(박원탁 외, 1998: 202-204)를 주장했다. 15년이 지난 2012년 아프리카 연구 현황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는 첫 번째 연구 결과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사한 발견

과 제안을 했다(조원빈, 2012a: 143-145). 이는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가 여전히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 준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 수집이나 연구비, 연구진의 규모 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본질적인 문제들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원빈(2012a)은 아프리카 연구의 개선 방향으로 연구 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 학제적 연구의 강화, 학문 후속 세대 양성, 한국적 관점의 개발, 교육자료 및 단행본 출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앞선 두 연구자의 진단과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과거에 비해 아프리카 관련 도서나 논문을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졌지만, 외국의 연구 중심 대학들이 소장하거나 공급하고 있는 아프리카 관련 자료의 양과 질을 생각하면 한국에서의 자료 수집은 지극히 열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체계적 강의가 개설되는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할 교육기관이 늘어나야 한다. 유수의 대학에서 운영하는 국제학대학원에서도 아프리카 지역 전공은 한국외국어대학을 제외하고는 개설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육성을 위한 지원금이 생기면서 아프리카 전문 연구진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아프리카연구소를 급조하거나 기존 연구소 명칭에 아프리카를 추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한 이제까지의 아프리카 연구 현황을 통해 기존에 제기된 논점들에 추가하고자 하는 점은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가 다른 분과 학문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현상이다. 지역연구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 분과 학문과 지역연구가 갖는 경쟁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국내 아프리카 연구의 1세대들은 아프리카 지역연구 자체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프리카 연구를 발전시켜야 했기 때문에, 소속 분과 학문에서 제대로 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구조적으로 학문적 소통과 토론, 경쟁과 협력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아프리카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분과 학문에서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현지에서의 연구 경험과 현지어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지역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역량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서구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요

약 소개하는 수준의 연구는 여타 지역연구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연구자들이 자신이 속한 분과 학문에서 학문적 경쟁력을 갖출 필요도 있다. 연구자가 적은 아프리카를 연구한다는 핑계로 분과 학문의 입장에서 보면 이론적 정치함이나 방법론적 엄격함이 결여된 연구들을 양산한다면 아프리카 연구는 소외되고 고립된 분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양한 분과 학문에서 이론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연구주제가 아프리카 지역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연구가 해당 분과 학문의 학술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때에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가 지역연구로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방법론적 고민 역시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무문자 사회로 오랜 전통을 지닌 아프리카의 인문 연구는 연구방법론에서의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양한 분과 학문에서 학제적 연구 기회를 강화함으로써 아프리카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성찰과 발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 연구자로서 현지 연구의 경험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역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연구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아프리카 연구는 지역 연구로서의 기본적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지역연구와 분과학문의 건강한 경쟁과 협력을 가능케 하는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연구를 위한 학문 후속 세대 양성도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주변적 위치를 고려해서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신흥지역 연구 지원 사업이나 인력 양성 사업들이 아프리카연구소나 아프리카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한국의 대학 중 아프리카 전문 연구자들을 확보한 대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급조된 아프리카연구소는 정부 지원이 끝나면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 연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환경이나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우수한 기관에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아프리카학계는 해당국의 최우수 대학에서 육성된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우수한 대학에는 아프리카 관련 강의도 개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짧은 시간 내에 아프리카 연구를 일정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교육 및 학습 역량이 뛰어난 대학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아프리카 연구가 성장하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진 1998년이나 2013년 현재 여전히 초보적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 연구의 문제는 학문 후속 세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부 지원책은 ‘성장제를 과다 투여한 병아리’⁹처럼 몸체는 자랐지만 연구 수준과 역량은 너무나 부족한 아프리카 연구를 만들 뿐이고 한국의 학계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투고일: 2013년 5월 20일 | 심사일: 2013년 5월 31일 |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8일

참고문헌

- 공일주·전완경. 1998. 『북아프리카사』. 서울: 대한교과서.
- _____. 2004. 『아프리카어 연구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7. “범주화의 불안정성: 스와힐리어의 U-부류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6, 3-44.
- _____. 2008. “아프리카 제어에 나타난 성(gender) 범주의 유형학적 비교: 스와힐리어의 명사부류체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연구』 23, 3-42.
- _____. 2011. 『아프리카 사회언어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2. 『스와힐리 고전 시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권명식. 1988. 『아프리카학 입문』. 서울: 명지출판사.
- _____. 2004. 『아프리카어 연구입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7. “범주화의 불안정성: 스와힐리어의 U-부류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6, 3-44.
- _____. 2008. “아프리카 제어에 나타난 성(gender) 범주의 유형학적 비교: 스와힐리어의 명사부류체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연구』 23, 3-42.
- _____. 2011. 『아프리카 사회언어학』.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2. 『스와힐리 고전 시의 이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⁹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세미나(2013. 5. 22)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의 장용규 교수가 현재의 아프리카 연구를 비유한 표현이다.

- 김경일. 1998a.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서울: 문화과학사.
- _____. 1998b. “지역연구의 정의와 쟁점들.” 김경일 편,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17-49. 서울: 문화과학사.
- 김광수. 2001. “남아공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의식의 관계연구: 남아공의 역사학과 학생들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3, 185-238.
- _____. 200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건설: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역사청산, 국민화합 그리고 민주화과정에 기여한 역할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연구』 15, 29-80.
- _____. 2006. “서부 아프리카의 구전 역사가 그리오(Griot)와 남부 아프리카의 구전 역사가 임봉기(Imbongi)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4, 51-82.
- _____. 2009.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바라 본 스와힐리 역사와 문명의 정체성 고찰.” 『국제지역연구』 13(1), 67-105.
- 김다원 · 한건수. 2012. “‘사실’과 ‘재현’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다시보기: 초중학교 사회 교과서 아프리카 서술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7(3), 1-20.
- 김순식. 1994. “탈식민주의적 아프리카 담론의 한 전형: 치누아 아체베의 작품세계.” 『외국문학』 38, 48-65.
- 김영수. 1999. 『남아공의 변혁운동과 노동조합』. 서울: 현장에서 미래를.
- _____. 2001a. 『화해는 용서보다 기억을 요구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주의의 역사 현실 미래』. 서울: 동인.
- _____. 2001b.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TRC)의 활동과 성격.” 『법과사회』 21, 41-60.
- _____. 2005. “남아공의 민주주의 이행과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운동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3), 99-125.
- _____. 2008.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TRC)와 개혁적 사회통합: 민주주의 이행과정으로서의 과거사 정리정책.” 『국제지역연구』 12(4), 67-88.
- _____. 2009. “과거사 정리와 사회개혁정책: 르완다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8(2), 113-139.
- 김윤진. 1986. “스와힐리어의 Tense-Marker.” 『언어와 언어학』 12, 61-75.
- _____. 1984. “스와힐리어 변형동사의 형태분류.” 『아프리카종합연구논총』, 303-330.
- _____. 1994. 『동아프리카사』. 서울: 대한교과서.
- _____. 2006. 『남아프리카의 역사』. 서울: 명지출판사.
- _____. 2007. 『아프리카 문학의 이해와 감상』. 서울: 다해.
- 김의락. 2001. 『아프리카 영문학』. 서울: 신아사.

- _____. 2002. 『떠오르는 대륙, 아프리카 문화』.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3. “억압과 지배논리의 폭력성: 한국 여성, 아프리카 여성.” 『비교한국학』 11(1), 1-17.
- 김학수. 2004a. “차딕어들의 복수행위동사 연구.”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9, 25-46.
- _____. 2004b. “서아프리카의 토착문자들: 만데 어군 언어들의 음절문자들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연구』 17, 91-118.
- _____. 2005. “아프리카 언어 상황에 대한 소고.” 『아프리카연구』 18, 37-52.
- _____. 2006. “차딕 어군 언어들의 유형적 특성에 관한 고찰.” 『아프리카연구』 20, 61-96.
- _____. 2007. “아프리카 언어들의 표기에 관한 연구.”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5, 41-89.
- _____. 2011. “차딕어들에 나타나는 시제, 상, 서법(TAM) 범주의 유형적 특성 및 통시적 발전.” 『아프리카연구』 30, 3-46.
- 나윤도. 1983. “아프리카 정치지도자의 교체과정 고찰.” 『아프리카연구』 3, 7-30.
- _____. 1990. “남아공 경제와 남부아프리카의 지역협력.”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1), 77-113.
- 노영찬 · 김동호 · 배상길 · 송학원 · 유중현 · 이두복 · 이종업. 1998. “좌담: 대 아프리카 외교의 재조명.” 『외교』 47, 82-97.
- 박승무. 2002. 『신비의 세계, 서아프리카의 역사』. 서울: 아침.
- 박영호. 2001. “아프리카 수입시장 분석 및 수출유망 품목 도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4, 85-121.
- _____. 2003. “한국의 대 아프리카 수출확대방안 연구.”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7, 63-94.
- _____. 2004. “남아공의 경제개혁 평가 및 향후 개혁전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9, 63-90.
- _____. 2006. “아프리카 정상외교의 성과와 향후 협력과제.” 『대외정책연구』 2006년 4월 호, 62-70.
- 박영호 · 김권식. 2008. “국제원유 가격의 급등락 원인과 아프리카 자원개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8, 41-72.
- 박원탁. 1982. 『아프리카의 이해』 서울: 문학예술사.
- _____. 1989. 『아프리카 지역정치론』 서울: 명지출판사.
- 박원탁 · 정영태 · 조부연. 1998. “아프리카의 현황과 과제.” 이상섭 · 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187-207.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정경. 2001. “스와힐리어 내륙 전파의 역사적 배경과 산문문학의 발전.”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4, 265-286.
- _____. 2004. “스와힐리 초기 소설에 나타난 구연민담의 영향: 젊은이의 사회적 성숙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0, 103-131.
- _____. 2005. “아프리카 문학에 있어서 언어 선택의 문제: 응구기 와 띠오투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2, 53-73.
- _____. 2006. “구연자에 의한 스와힐리 구연민담의 주제 변화.”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3, 3-36.
- _____. 200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문자 문학의 태동과 이슬람: 스와힐리어권과 하우사어권의 문자시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27, 125-145.
- _____. 2009. “케냐 스와힐리 문학의 부상: 교육 언어정책이 스와힐리 문학에 미친 영향.”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9, 153-182.
- _____. 2012a. “기원설화의 정치학.” 『외국문학연구』 48, 83-101.
- _____. 2012b. “케냐 도시화의 그늘: 나이로비 도시민의 구술승언에 나타난 민족갈등.”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5, 73-102.
- 서상현. 1999. “남아공의 타보 음베키 정권출범과 경제정책.”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1, 155-182.
- _____. 2000. “신생 남아공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미래에 대한 전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2, 57-80.
- _____. 2001. “남아공 민주화와 노동조합의 역할: COSATU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4, 123-145.
- _____. 2005. “아파트헤이트 철폐 이후 남아공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운동.”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1, 85-116.
- _____. 2006. “남아공 민주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민주화 이행의 환경.”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3, 37-77.
- _____. 2010. “글로벌 안보 관점에서 본 미국의 대 아프리카 전략.” 『국제지역연구』 14(3), 173-194.
- 설병수. 2013. 『가나 볼타주 바제메 사람들』. 서울: 다해.
- 송도영. 1995. 『유목민에서 도시민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신원용. 1997. “아프리카의 정치적 전통과 식민주의, 민주주의의 전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9, 177-195.
- _____. 2001. “대아프리카 FDI의 현황과 전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3, 83-107.

- _____. 2003. “아프리카 지역통합방식의 변화와 과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7, 95-108.
- _____. 2010. “French Foreign Policy towards Africa in the 1990s: Change or Continuity?”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2, 109-132.
- 신원용 외. 2005. 『아프리카의 지역통합과 세계화』. 서울: 신지서원.
- 심의섭. 1990. 『아프리카 경제론』. 서울: 명지출판사.
- 심재중. 2007. “아프리카와 흑인의 이미지: 18~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불어문화권연구』 17, 107-128.
- _____. 2008. “콩고의 민족주의와 문학: 루뭉바, 세제르, 우 탐시.” 『불어문화권연구』 18, 79-102.
- 심지영. 2009. “‘아르 네그르’에서 네그리튀드의 현대미술로: 프랑스 미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불어권 흑아프리카 미술의 정체성 문제.” 『불어문화권연구』 19, 29-65.
- _____. 2010. “프레데릭 브릴리 부아브레: 아프리카 베테 문자의 발명과 역사 그리기.” 『불어문화권연구』 20, 62-92.
- 심현수. 2011. “아프리카 천연가스 확보를 통한 한국기업의 사업다각화 방안.”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4, 75-101.
- 왕인근. 1990.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와 남부아프리카 제국.”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1), 49-76.
- _____. 1995. 『아프리카 농업발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우영환. 2001. “검은 아프리카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사적 의의 및 한국기업의 진출방향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27, 169-197.
- 윤서영. 2004. “일상성을 바탕으로 한 나딘 고디머의 글쓰기: 세대 간 갈등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연구』 17, 179-205.
- _____. 2013. “하우사 현대문학의 탄생: 「루완 바가자」의 구조, 문체, 트릭스터의 이미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아프리카학부 박사 학위 논문.
- 윤선희. 2012.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영상인류학과 식민주의 시선의 재현에 대한 문화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5(3), 233-266.
- 옹구기 와 씨옹오 저. 이석호 역. 1999.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 문학』. 서울: 인간사랑.
- _____. 박혜경 역. 2007. 『마음의 탈 식민지화: 내 마음을 담는 그릇, 모국어』. 서울: 수밀원.
- 이경순. 1997. “부치 에메체타의 소설에서 본 현대 아프리카 여성의 자아의식.” 『현대영미소설』 4(1), 153-172.

- 이경원. 2002. “우리에게 영어는 무엇인가?: 아체베와 응구기-영어제국주의와 탈식민적 저항의 가능성.” 『안과밖』 12, 66-87.
- _____. 2011. 『검은 역사 하얀 이론: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서울: 한길사
- 이남희. 2003. “과거청산에서 진실과 화해: 남아공의 사례.” 서울대인문연구원 편, 『역사와 기억』 발표문.
- _____. 2005. “진실과 화해: 남아공의 과거청산.” 김남섭 외, 『세계의 과거사 청산: 역사와 기억』, 145-188. 서울: 푸른역사.
- 이상섭 · 권태환 편. 1998.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석구a. 1983. “북한의 대 아프리카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학위 논문.
- 이석구b. 1997. “식민주의 역사와 탈식민주의 담론.” 『외국문학』 50, 122-143.
- _____. 2001. “치누아 아체베와 민족주의 문제.” 『영미문화』 1, 249-272.
- _____. 2008. “아프리카 초기 여성문학에 나타난 여성주의: 누와파와 오곳의 비교.” 『비교문학』 44, 113-138.
- _____. 2011. 『제국과 민족국가 사이에서: 탈식민시대 영어권 문학 다시 읽기』. 서울: 한길사.
- 이석호. 2003a. “아프리카 문학과 탈식민주의 그리고 한국의 과제.” 『실천문학』 70, 336-344.
- _____. 2003b. “노벨문학상과 아프리카 문학.” 『실천문학』 72, 328-335.
- _____. 2009. “아프리카의 탈식민주의 시각으로 본 탈경계 인문학 연구의 한 사례: 조셉 콘라드의 ‘암흑의 핵심’을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3, 91-115.
- 이한규. 1989. “탈냉전 이후 아프리카 민주화 과정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41(3), 409-435.
- _____. 1999. “카메룬의 정당발전에 관한 고찰: 1945~1958.” 『국제정치논총』 39(1), 369-394.
- _____. 2000. “아프리카의 민주혁명: 세네갈과 나이지리아의 민주화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4(1), 231-259.
- _____. 2005. “식민지배하 아프리카 여성의 사회 정치참여에 관한 고찰.” 『국제정치논총』 45(3), 337-357.
- _____. 2009. “자원이 분쟁에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9, 283-319.
- _____. 2010. “아프리카 지방분권화에 대한 고찰.” 『아프리카연구』 28, 3-34.
- _____. 2012. “만델라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고찰: 위기상황의 대처 능력을 중심으로.”

- 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5, 103-141.
- _____. 2013. 『세네갈 레부 사람들의 전통 공간』, 서울: 다해.
- 이호영. 1999. “한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 아프리카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정치학회보』 33(3), 371-390.
- _____. 2011. “한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의 동학과 대응방안: 에너지,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16(2), 137-163.
- 임희모. 2007. 『아프리카 독립교회와 토착화 선교』, 서울: 한국학술정보.
- 장용규. 1999. “줄루 종교 현상의 사회학적 고찰: 잉고지니(Ingozini)에서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1, 129-154.
- _____. 2001. “아프리카 점술 뼈의 상징, 논리와 사회적 의미: 줄루 사회의 점술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21, 523-544.
- _____. 2003. “아프리카 종교의 새로운 해석: 줄루 점술입문의례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8, 243-270.
- _____. 2005. “‘샌드위치 민족’: 구조적 폭력과 남아공 인도인 정체성의 변화.”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2, 191-221.
- _____. 2005.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언어정책과 국가통합.” 『아프리카연구』 19, 99-125.
- _____. 2008.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문헌고찰을 통한 비판적 유형분류.”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4, 197-220.
- _____. 2012. “아프리카, 도시화와 공간의 사회학.”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7, 159-188.
- _____. 2013. “아프리카 연구 현황”(未刊).
- 장태상. 1996. “하우사 시문학의 장르 구분.” 『한국아프리카학회지』 8, 203-221.
- _____. 1998. “하우사(Hausa) 족의 보리(Bori) 무속신앙과 보리의 드라마적 성격.”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0, 141-161.
- _____. 1999a. “아프리카의 속담전통을 통해서 본 속담에 관한 통념의 제문제.” 『비교민속학』 17, 401-428.
- _____. 1999b. “서아프리카 하우사족의 찬양시 전통에 대하여: 성과 권력과 문학의 사회적 통제.” 『비교민속학』 16, 271-304.
- _____. 2000. “아프리카의 구연서사시.” 『비교민속학』 19, 289-330.
- _____. 2002a. “속담의 상황적 구조: 서아프리카 하우사 속담을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5, 209-231.
- _____. 2002b. “서아프리카 하우사족의 보리무속과 신내림굿.” 『한국무속학』 5, 199-224.

- _____. 2003. “하우사 신문학의 태동과 태동에 기여한 요인: 1930~1980.”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8, 271-296.
- _____. 2005. “아프리카의 문자체계.” 『아프리카연구』 19, 127-154.
- _____. 2007. “하우사 구연 찬양시 전통의 현대적 수용: 방법론적 고찰.”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6, 175-204.
- _____. 2010. “하우사 카린 마가나(Karin Magana): 수사학적, 전략적 이름으로서의 말 접기.”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2, 193-216.
- _____. 2012. 『하우사 문법』.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정래광. 2010. “아프리카 자원 확보를 통한 한국 경제의 경쟁력.”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1, 103-126.
- 정혜옥. 2006. “이산 여성작가의 번역과 젠더: 킹스틴의 ‘여전사’와 에메체타의 ‘모성의 환희’를 중심으로.” 『영미문화』 6(1), 255-285.
- 조원빈. 2012a.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동향.” 『아시아리뷰』 2(2), 129-148.
- _____. 2012b. “종족분열구조와 선거제도가 아프리카인의 정치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학회춘계학술발표논문집』, 497-516.
- _____. 2012c. “아프리카인들이 바라보는 원조의 규모와 정부의 책임성.” 『정치정보연구』 15(2), 37-70.
- 조홍식. 2011. “국가·민족·종족의 정치: 코트디부아르 정치위기의 사례.” 『국제·지역연구』 20(2), 97-126.
- 최협. 1997. “인류학과 지역연구.” 최협 편, 『인류학과 지역연구』. 파주: 나남.
- 치누아 아체베. 1989(1999). 『세계문학과 식민주의 비평: 희망과 장애』. 서울: 인간사랑.
- 하경근. 1972. 『아프리카 정치론』. 서울: 일조각.
- _____. 1987. 『현대아프리카 정치론』. 파주: 법문사.
- 한건수. 2000. “친족체계의 실천적 이해: 요루바 친족출계율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6(2), 81-126.
- _____. 2001. “나이저리아에서 언어사용과 종족정체성: 요루바어와 정체성의 정치.” 『사회언어학』 9(2), 187-207.
- _____. 2002. “경합하는 역사: 사회적 기억과 차이의 정치학.” 『한국문화인류학』 35(2), 65-97.
- _____. 2003. “친족정체성과 의례: 올록벵라 종족의 오사라(Osara) 축제.” 『종교와 문화연구』 5, 49-72.
- _____. 2005a. “국내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의 유입과정과 실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 21집, 215-239.
- _____. 2005b. “종족정체성과 역사적 상상: 요루바 종족성과 기억의 공동체.” 김광익 외,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121-154. 서울: 아카넷.
- _____. 2006. “아프리카 문화의 상상과 소비.” 문옥표 외, 『우리안의 외국문화: 관광과 음식을 통해 본 문화 소비』, 115-159. 서울: 소화.
- _____. 2007a.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인의 상상과 재현.” 이옥순 외,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241-299. 서울: 삼인.
- _____. 2007b. “축제와 정체성의 연행: 요루바 알루꾸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5, 161-202.
- _____. 2008. “본국으로 귀환한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가나와 나이지리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27집, 225-268.
- _____. 2009. “희생, 대속, 그리고 브리플라주: 요루바 모레미 신화와 에디 축제.” 김용환 외, 『세계신화의 이해』, 241-261. 서울: 소화출판사.
- _____. 2010a. “다민족 사회의 종교 갈등과 정체성의 정치.” 『종교문화연구』 14, 111-135.
- _____. 2010b. “전지구화와 아프리카인의 국제이주: 유럽과 북미의 아프리카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1, 215-241
- 한양환. 1994. “Cheikh Anta Diop의 黑阿聯邦 구상에 관한 소고.” 『한국아프리카학회지』 7, 1-19.
- _____. 1997. “불어권 흑아프리카: 대불 종속관계의 현황과 전망.” 『한국프랑스학논집』 23, 635-659.
- _____. 1998. “후투-투치족 간 종족분규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0, 163-189.
- _____. 1999. “아프리카의 종족분규.” 『국제정치논총』 39(1), 395-415.
- _____. 2008a. “후기식민주의: 21세기 불어권 중부아프리카의 정치변혁 역동성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26(1), 277-304.
- _____. 2008b. “21세기 불어권 아프리카의 사회발전: 불어권 서부아프리카의 발간화, 주변부화, 세계화 과정분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3, 243-280.
- 한양환·김승민. 2003. “프랑스어권 국가연합의 현황과 발전전망.” 『한국프랑스학논문집』 42, 519-540.
- 한양환 외. 2009. 『불어권 아프리카의 사회발전』. 서울: 높이깊이.

- 황규득. 2006. “남부아프리카의 인간안보와 지역주의 접점에 관한 개념적 접근.” 『아프리카연구』 20, 155-180.
- _____. 2007a. “남부아프리카의 정치안보지역주의에 대한 개념과 분석수준 고찰: 남부 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7(2), 197-221.
- _____. 2007b.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통령제: 정치구조와 권력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6, 205-227.
- _____. 2008. “탄자니아 언어정책의 딜레마: 국가통합과 인권.”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8, 241-266.
- _____. 2011a. “탈아파트헤이트 시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방 분권화: 쟁점과 이슈.”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3, 123-146.
- _____. 2011b. “아프리카의 전략적 부상과 미국의 대 아프리카 에너지 안보.” 『세계지역연구논총』 29(3), 35-61.
- _____. 2012. “영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 전략: 쟁점과 이슈.”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5, 207-234.
- 홍의선. 2009.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화』. 서울: 한울.
- Behrend, Heike. 1999. “Power to Heal, Power to Kill: Spirit Possession and War in Northern Uganda(1896-1994).” In Heike Behrend and Ute Luig, eds., *Spirit Possession: Modernity and Power in Afric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33.
- Boddy, Janice. 1989. *Wombs and Alien Spirits: Women, Men and the Zar Cult in Northern Suda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Chitiyo, K. and M. Rupiya. 2005. “Tracking Zimbabwe’s Political History: the Zimbabwe Defence Force from 1980-2005.” In M. Rupiya ed. *Evolutions and Revolutions: A Contemporary History of Militaries in Southern Africa*. Pretoria: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 Han, Geon Soo. 2000. “‘Community of Memory’: History, Ritual and Kinship in the Construction of Yoruba Social Identity.” Ph.D. Dissertation. Dep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Iwata, Takuo. 2012. “Comparative Study on ‘Asian’ Approaches to Africa: An Introductory Reflection.” *African Studies Monographs* 33(4), 209-231.
- Lan, David. 1985. *Guns and Rain: Guerrillas and Spirit Mediums in Zimbabw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nelisi, Genge et al. 2000. "African Union and Pan-African Parliament: Working Papers." [http://unpan1.un.org/intradoc/groups/public/documents/IDEP/UNP AN003885.pdf](http://unpan1.un.org/intradoc/groups/public/documents/IDEP/UNP_AN003885.pdf) (2013. 5. 10. 검색).
- Mudimbe, V. Y. 1988. *The Invention of Africa: Gnosis, Philosophy and the Order of Knowled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_____. 1994. *The Idea of Afric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Park, Jae Kyu. 1987.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Africa." In Jae Kyu Park, Byung Chul Koh, and Tae-Hwan Kwak ed.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Boulder: Westview Press. 436-461.
- Philips, John Edward. 1997. "African Studies in Japan." *African Studies Review* 40(3), 161-180.
- Simpson, John. 2008. "Tracking down a massacre." BBC News. 2008. 5. 7. <http://news.bbc.co.uk/2/hi/africa/7388214.stm>.
- Song, Young Hoon. 2012a. "International Humanitarian Response and Militarization of Refugee and IDP Camps in Kenya and Sud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9(1), 115-136.
- _____. 2012b. "Conflict, International Response, and Forced Migration in Sub-Saharan Africa, 1980-2007."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0(1), 1-36.
- Zang, Laurant. 1998. "The Contribution of African Diplomacy to the Non-Aligned Movement and the Group of 77." *Af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1), 1-16.

Abstract

A Methodological Reflection on African Studies in Korea and a Review for Research Topics

Geon Soo Ha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s in African studies in Korea began to accumulate only in the second millennium. The early studies are mainly comprised of studies focused on introducing and reviewing foreign scholars' researches in the fields of politics and economics. The foundation of the Department of Swahili Language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1983 marked a point of initiation in the education of Korean academics in the field of Afric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addition, in mid-1990's, Korean scholars' researches on Africa began to expand in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They began to situate each discipline's theoretical and topical issues in African studies. Nevertheless, the research quality of the African studies in Korea remains at its infant stage. This partially owes to the lack of academic competition and debates between scholars educated in the department of African language and scholars trained in various other disciplines whose research topics are related to Africa. This makes African studies a marginal field of study unable to integrate into the mainstream academic fields in the Korean academia.

To settle down as an established academic field in Korea, African studies needs to develop with a higher level of theoretical sophistication and methodological reflection. More opportunities for field research in Africa should be made available, as well. Korean scholars should also be

encouraged to find creative research topics in order to come up with a distinctive perspective of their own, instead of recounting the researches by foreign scholars. Research fund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African studies in Korea are significantly lacking, they must also increase in number. Specifically, it would be important to support top universities, so that their outstanding students could be convinced to become the leading scholars of the next generation in the African studies of Korea, a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frican studies specialists with excellent academic ability. These examples of systematic support must be provided in order for the field of African studies in Korea to develop.

Keywords | Africa, area studies, topic and disciplinary approach

